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6호 [루체 제23048호] 주제99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이 세네갈최고
훈장인 민족대십자훈장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네갈공화국은 공식 친선방문하고 있는 국 대통령이 세네갈최고훈장인 민족대십자훈장을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훈장을 아브둘라이 와드대통령이 4일

제96호 [루체 제23048호] 주제99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

태양절 기념 행사 여래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즐음하여 중국 심양, 캄보자 프놈펜, 에질트 카하라, 우크라이나 끼예브에서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 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선군조선의 불폐의 위력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은 중국 심양시인민부대 외과학기술교류중심, 캄보자왕궁성, 에질트조선친선협회와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우크라이나 「마스페트-클라스」 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캄보자 왕궁담당부수상은 회고모임에서 태양절에 즐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삼가 기원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캄보자국왕과 대왕 그리고 캄보자인민은 김일성대원수각하를 가장 친근한

벗으로 열렬히 경모하고 있다. 노로동시 하누크대왕파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마련해 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조선의 건국위업과 불멸의 풍자력을 쌓아올리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다. 대원수각하의 위엄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선정부와 인민이 김정일원수각하의 명도밑에 김일성대원수각하의 환영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모습을 살피기 위한 행운의 날이 되도록 기원한다. 김정일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운의 날이 되도록 기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보건법의 우월성과 생활력 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을 제채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인민보건법이 제채될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지난 30년간 우리 나라에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에 대한 국적투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속에 치료에 방기판들이 대체적으로 확장된 후에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활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들이 새로

인민보건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그 우수성과 생

|| 공동구호에서 || 모든 도시와 마을을 뜻으로 우거진 공원 속의 도시, 공원 속의 마을로 만들자!

문수봉이여, 그날의 사연 길이 전하라

4월의 문수봉에 따사로운 봄빛이 흐르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한 혁명영적을 길이 전하며 그 이름 및 나는 문수봉.

전국도처에서 강성대 국진설대전의 승천교가 뼈이어 울리고 있는 이 시각 봄빛 완연한 문수봉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폐일에 대한 희망을 얼마나 환희롭게 솟상여주고 있는가.

돌이켜 보면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4월 어버이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어 심으신 나무들에는 자주, 자림, 자위로 길이 빛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억센 기상과 부강조국의 휘황한 미래가 어려웠었다.

하기에 문수봉혁명사적지를 찾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어버이 수령님의 남원인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 땅에 하루빨리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광복직후 봄소문수봉에 오르시어 나무를 심으시고 보통강반에 나가시여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습니다.»

문수봉!

그 이름 조용히 외워보느라면 온 나라의 뿐만 아니라 어리여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역사가 우리에게 뜨겁게 파도쳐온다.

해방 후 토지개혁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요구는 비 할바없이 높아졌다.

비로 그때 한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세기적 속임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김을 관심을 돌리시면서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계획을 두었으나,

산림을 전망있게 조성하지 않는데다면 아무리 토지개혁을 실시한

다고 해도 비비람으로부터 농민들

의 토지를 보호할수가 없었다. 더우기 이 문제의 해결은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나라는 부강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새 민주조선건설시기 비범한 선진지역으로 부강조국의 면 폐일까지 내다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산림조성과 관련한 문제를 토지개혁준비와 병행하여 밀고나가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술이면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일본제국주의자의 소유였던 산림, 하천, 소래는 일제의 물수하여 인민들의 소유로 하며 그 판권은 지방정권기관에 위임한다. …

조국이 해방된 그해 10월에 발표하신 『도지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벌써 이렇듯 토지개혁과 함께 나라의 모든 산림을 국유화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시고 북조선설립시민위원회 회를 조직하시는 혁신적인 협의회에서도 산림 국유화를 중요하게 강조하신 어버이 수령님,

해방된 이듬해의 3월 2일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어 온 나라를 봄으로 뒤덮이게 하실 용대한 설계를 두르는 하신데 이어 지체없이 미칠후에 발표하신 『북조선설립시기개혁에 대한 법령』에서 산림국유화를 정착화하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높은 국적열성을 가지고 나무심기의 창가할수 있도록 걸음을 끊어나고자 노력하시는 혁신적인 협의회에서도 산림 국유화를 중요하게 강조하신 어버이 수령님,

해방된 이듬해의 3월 2일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어 온 나라를 봄으로 뒤덮이게 하실 용대한 설계를 두르는 하신데 이어 지체없이 미칠후에 발표하신 『북조선설립시기개혁에 대한 법령』에서 산림국유화를 정착화하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높은 국적열성을 가지고 나무심기의 창가할수 있도록 걸음을 끊어나고자 노력하시는 혁신적인 협의회에서도 산림 국유화를 중요하게 강조하신 어버이 수령님,

비로 그때 한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세기적 속임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김을 관심을 돌리시면서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계획을 두었으나,

산림을 전망있게 조성하지 않는데다면 아무리 토지개혁을 실시한

다고 해도 비비람으로부터 농민들

공고히 하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어버이 수령님,

그이의 크나큰 고로고와 거룩한 자단한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죽은 주제 36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숲을 풀었고 다시 흙으로

력사의 일제에 의해 벌거숭이가 된 산을 바라보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가슴은 참으로 아프고 쓰리시였다.

그처럼 무성하고 아름답던 조국의 산야와 함께 문수봉도 자가의 옛 모습을 잃고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우리 수령님의 심중이 오죽 하셨으랴.

문수봉은 자기의 아름다운 빛을 잃은 우리 조국강산의 한 축도였다.

어버이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시민들의 가슴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국산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풍치수려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러원, 부강조국을 일떠세워주시려고 그처럼 뜨고 바쳐하시는 위대한 애국자의 승용한 모습을 천만군민이 어찌 잊을수 있소라.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문수봉이라고 불리워온 이 산은 원래 울을 창하였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도적인 자연학

법에 의해 해방직후에는 나무한 대 제대로 서있었는지 없었다. 눈에 띠는 것이 있었던가 일제침략자들이 쓰던 명령과 마구 파놓은

방공호들뿐이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 치는 견본을 긁지 못하시며 삽날을 땅에 험하게 박으셨으�다.

그 력사의 순간을 직접 체험하는

영광이란 나무심기에 참가한 일군들과 평양시민들의 가슴속에서는 경쟁의 과정이 세차게 일렁이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무심기 가자는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나무심기 가능을 알도록 걸음을 끊어나고자 노력하시는 혁신적인 협의회에서도 산림 국유화를 중요하게 강조하신 어버이 수령님,

준고군은 땅이여서 삽날은 끝까지 빠지지 않았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삽을 놓으시고 꼭풀이로 굳은 땅을 파헤치시였다.

이윽고 그때에서는 이 깊나무모루에 붙어있는 흙덩이를 두손으로 소중하게 떠밀어 척드시고 나무는 어린 애와 같이 조심히 다루어 뿌리와 줄기와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심은 나무들이 잘 살수 있도록

준고군은 땅이여서 삽날은 끝까지 빠지지 않았다.

나무를 심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각 지방들에서 나무모발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나무모발은 좋은 나무종자를 많이 심어 유효되는 나무모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버이 수령님의 그날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정도에 더욱 활짝 펴고, 심은 나무들이 잘 살수 있도록

물도 자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멍이 안에 나무모를 옮겨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순수 보드라운 흙으로 뿌리를 덮어주시고 나무모가 기울어지지 않는가를 가늘하던 다음 물을 부으시고 다시 흙으로

풀을 흘리, 원림회원 공장, 기업소들…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산들을 명실공히 사회주의 조선의 산답게!

여기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생 사랑하고 가꾸신 우리 조국강산을 더욱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숲을 풀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봄철나무심기에 한 사람같이 멀쳐나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생 사랑하고 가꾸신 우리 조국강산을 더욱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숲을 풀었어.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절처진 드넓은 나무모발들, 산지에 뿐리

여기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산들을 풀었어.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봄철나무심기에 한 사람같이 멀쳐나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 밖들어 어

신천군당위원회는 올해 공동 사업을 높이 발휘하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일대 공세가 벌어지는 경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지난해 보다 밟은는 정보당 10t, 논에는 5t의 질 좋은 거름을 더 내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300여 km 구간의 기본물길 개시기와 유자천 물길 보수공사, 척서 천보수공사를 씨 뿌리기 철전으로 와 닥락 끌념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하지 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대단한 성과이다.

실효를 거둔 현장 협의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사를 작전하고 지휘하는 참모부서이다. 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해야 군의 농사가 잘된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올해의 농사협의회를 위한 농사협의회를 혁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들였다. 종전에는 협의회를 대체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하였다. 물론에는 둘째는 포전을 협의회장소로 정하였다. 이것은 협의회 참가자들에게 혁신에 선 명사라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었다.

한국군에서도 지역별로 기후와 토양조건이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알곡생산규모도 각각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농사협의회를 일률적으로 조직하였다. 당시에 박힌 처방이나 나오게 되었다. 이런 식의 협의회는 응당한 실효를 거둘수 없었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사업기풍

신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당시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대한 대중을 떠밀어 주는 송풍기, 가속기가 되어 농사와 관련하여 설계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집행되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신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문제를 소개한다.

모든 단위가 경쟁대상, 경쟁참가자

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올해의 농사협의회를 농사조건과 기후, 알곡생산규모가 비교적 같은 지역별로 같아서 조직하게 하였다. 이렇게 군당위원회가 올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짓기 위한 합리적인 고 혁신적인 안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었다. 협의회 참가대상은 종전처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과 협동농장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협동농장의 농산분조장이 상 일군들이 다 참가하게 하였다.

이렇게 땅을 직접 다루는 초급일군들까지 참가시키니 그들은 군안의 농사방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자기 단위 농사를 본래 있게 지을 결심도 굳하게 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공정별로에 따르는 농사협의회도 앞선 단위의 경험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호암

이것은 일군들을 불러일으키고 앞선 경험이 온 군에 일반화되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협의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를 알려주면서 소식회생산을 늘여야 땅의 지력을 높이고 올해 농사를 알심있게 지을수 있도록 협의회 참가자들은 자기 단위의 농사분만이나 군안의 농사를 당시의 도대로 잘 짓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현신적인 협의회는 그대로 농사실천으로 이어졌다. 오늘 신천군은 거름생산뿐만 아니라 소농기구와 영농자재 확보, 씨뿌리기 등 당면한 영농 협력사업에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되고 있다.

농사실천에서 생활력이 발휘되게 하는 협의회, 당시 농업 혁명방침 관찰에 따른 일군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혁신적인 협의회는 얼마나 좋은가.

올해에 군이 경영하여야 할 전투목표는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달파하고 선군시대의 새 기록을 창조하는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모든 분포전에 훑어온 후에 군당위원회가 협동농장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협의회의 생활력은 농사실천에서 나타나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협의회가 혁신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토의된 문제들이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 정기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정기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모든 단위가 경쟁대상, 경쟁참가자는 군하였다. 결국 모든 단위들이 이 사회주의 경영으로 끌어번지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경쟁을 벌리는 목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대고 고자고 일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사회주의 경영의 불길로 대중의 경영력을 최대 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40일동안에만도 2만 5 000t 정부에 수백명이 생산되는 전례없는 협의회는 창조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힘들어
이 말을 하기 부끄러워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자랑 할 때면
나는 저 멀리 강가에 흘로 서있었다
나에게 아버지자랑 할게 없어서

무를 바지 입고 다니던 소학교 그
시절
아버지는 뛸하시는가고 묻는 선생님
물음에
우리 아버지는 승용차를 탔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왕복을 달
았다고
학급동무들이 저저마다 아버지자랑
할 때면
나는 죄를 지은 것처럼 머리를 수
그렸다
나의 아버지는 그냥 로동자여서

눈물이 나도록 서글펐다
동네 아이들의 아버지자랑에 쫓기워
해질 날까지 강가에 흘로 서있었고
학급동무들의 아버지자랑에 놀리워
때없이 머리숙이던 나서서
나는 제발 마음으로 떨었어라
동무들 더는 아버지자랑 하지 말았
으면
선생님 제발 아버지직업 묻지 말았
으면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이 불
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펼쳐 강성대국건설의 모
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원리탄광 전산개
의 굽진공들이 말거친 굴진계
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불꽃
뛰는 전투를 벌려가고 있던 이
느날이었다.

망장한 광판에서 난데없이 안
전등 불빛이 비쳐지는 것과 함께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
려왔다.

(분명 우리 동무들은 아닐 것
이고 교대시간도 아직은 멀었
는데…)

굽진공들이 미처 의문을 풀
새도 없이 불빛의 주인공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뜻밖에도
지배인과 초급당비서, 기

로동자는 땀내나는 작업복 걸치고
언제 봐도 빛이 안나는 사람 같아서
로동자와 로동자의 아들은
하나로 불리우는 것 같아
나는 때로 웃사람들의 물음에
번발하듯 되어지게 웨쳤어라
나의 아버지는 전쟁 때 기관차를
몰았다고

누가 감히 숫불가봐
누가 함부로 나의 아버지를 건드
릴까봐
나는 밤새워 산수문제를 풀었거니
명절날에 만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공로메달
이것은 나의 아버지 자랑의
전부!

허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나는 아버지자랑에서 한번도 이런 적
이 없었다
오, 그날은
내가 아버지자랑에서 이긴 그날은
아버지수령님 우리 공장에 찾았으
시여
장발박힌 아버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로동계급의 손은 보배손이라고
우리 새 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
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였어라

나는 학교에서 마을에서 자랑했어라
수령님께서 나의 아버지 손을 잡아
주시며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승용차도 왕복도 로동자다움에 있
다고

로동자의 이름은
수령님 계시여 빛나는 내 조국의
자랑

로동자의 삶은
수령님과 떨어져선 순간도 못사는
운명이여서

용서치 않더라 로동계급은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던
그때

수령님의 권위를 헐뜯는 종파분자
들을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79·80·81·82·83·84·85·86·87·88·89·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8·279·279·280·281·282·283·284·285·286·287·287·288·289·289·290·291·292·293·293·294·295·295·296·297·297·298·298·299·299·300·300·301·302·303·303·304·304·305·305·306·306·307·307·308·308·309·309·310·310·311·311·312·312·313·313·314·314·315·315·316·316·317·317·318·318·319·319·320·320·321·321·322·322·323·323·324·324·325·325·326·326·327·327·328·328·329·329·330·330·331·331·332·332·333·333·334·334·335·335·336·336·337·337·338·338·339·339·340·340·341·341·342·342·343·343·344·344·345·345·346·346·347·347·348·348·349·349·350·350·351·351·352·352·353·353·354·354·355·355·356·356·357·357·358·358·359·359·360·360·361·361·362·362·363·363·364·364·365·365·366·366·367·367·368·368·369·369·370·370·371·371·372·372·373·373·374·374·375·375·376·376·377·377·378·378·379·379·380·380·381·381·382·382·383·383·384·384·385·385·386·386·387·387·388·388·389·389·390·390·391·391·392·392·393·393·394·394·395·395·396·396·397·397·398·398·399·399·400·400·401·401·402·402·403·403·404·404·405·405·406·406·407·407·408·408·409·409·410·410·411·411·412·412·413·413·414·414·415·415·416·416·417·417·418·418·419·419·420·420·421·421·422·422·423·423·424·424·425·425·426·426·427·427·428·428·429·429·430·430·431·431·432·432·433·433·434·434·435·435·436·436·437·437·438·438·439·439·440·440·441·441·442·442·443·443·444·444·445·445·446·446·447·447·448·448·449·449·450·450·451·451·452·452·453·453·454·454·455·455·456·456·457·457·458·458·459·459·460·460·461·461·462·462·463·463·464·464·465·465·466·466·467·467·468·468·469·469·470·470·471·471·472·472·473·473·474·474·475·475·476·476·477·477·478·478·479·479·480·480·481·481·482·482·483·483·484·484·485·485·486·486·487·487·488·488·489·489·490·490·491·491·492·492·493·493·494·494·495·495·496·496·497·497·498·498·499·499·500·500·501·501·502·502·503·503·504·504·505·505·506·506·507·507·508·508·509·509·510·510·511·511·512·512·513·513·514·514·515·515·516·516·517·517·518·518·519·519·520·520·521·521·522·522·523·523·524·524·525·525·526·526·527·527·528·528·529·529·530·530·531·531·532·532·533·533·534·534·535·535·536·536·537·537·538·538·539·539·540·540·541·541·542·542·543·543·544·544·545·545·546·546·547·547·548·548·549·549·550·550·551·551·552·552·553·553·554·554·555·555·556·556·557·557·558·558·559·559·560·560·561·561·562·562·563·563·564·564·565·565·566·566·567·567·568·568·569·569·570·570·571·571·572·572·573·573·574·574·575·575·576·576·577·577·578·578·579·579·580·580·581·581·582·582·583·583·584·584·585·585·586·586·587·587·588·588·589·589·590·590·591·591·592·592·593·593·594·594·595·595·596·596·597·597·598·598·599·599·600·600·601·601·602·602·603·603·604·604·605·605·606·606·607·607·608·608·609·609·610·610·611·611·612·612·613·613·614·614·615·615·616·616·617·617·618·618·619·619·620·620·621·621·622·622·623·623·624·624·625·625·626·626·627·627·628·628·629·629·630·630·631·631·632·632·633·633·634·634·635·635·636·636·637·637·638·638·639·639·640·640·641·641·642·642·643·643·644·644·645·645·646·646·647·647·648·648·649·649·650·650·651·651·652·652·653·653·654·654·655·655·656·656·657·657·658·658·659·659·660·660·661·661·662·662·663·663·664·664·665·665·666·666·667·667·668·668·669·669·670·670·671·671·672·672·673·673·674·674·675·675·676·676·677·677·678·678·679·679·680·680·681·681·682·682·683·683·684·684·685·685·686·686·687·687·688·688·689·689·690·690·691·691·692·692·693·693·694·694·695·695·696·696·697·697·698·698·699·699·700·700·701·701·702·702·703·703·704·704·705·705·706·706·707·707·708·708·709·709·710·710·711·711·712·712·713·713·714·714·715·715·716·716·717·717·718·718·719·719·720·720·721·721·722·722·723·723·724·724·725·725·726·726·727·727·728·728·729·729·730·730·731·731·732·732·733·733·734·734·735·735·736·736·737·737·738·738·739·739·740·740·741·741·742·742·743·743·744·744·745·745·746·746·747·747·748·748·749·749·750·750·751·751·752·752·753·753·754·754·755·755·756·756·757·757·758·758·759·759·760·760·761·761·762·762·763·763·764·764·765·765·766·766·767·767·768·768·769·769·770·770·771·771·772·772·773·773·774·774·775·775·776·776·777·777·778·778·779·779·780·780·781·781·782·782·783·783·784·784·785·785·786·786·787·787·788·788·789·789·790·790·791·791·792·792·793·793·794·794·795·795·796·796·797·797·798·798·799·799·800·800·801·801·802·802·803·803·804·804·805·805·806·806·807·807·808·808·809·809·810·810·811·811·812·812·813·813·814·814·815·815·816·816·817·817·818·818·819·819·820·820·821·821·822·822·823·823·824·824·825·825·826·826·827·827·828·828·829·829·830·830·831·831·832·832·833·833·834·834·835·835·836·836·837·837·838·838·839·839·840·840·841·841·842·842·843·843·844·844·845·845·846·846·847·847·848·848·849·849·850·850·851·851·852·852·853·853·854·854·855·855·856·856·857·857·858·858·859·859·860·860·861·861·862·862·863·863·864·864·865·865·866·866·867·867·868·868·869·869·870·870·871·871·872·872·873·873·874·874·8

전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기치

오늘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자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대 단결총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신 17일이 되는 날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제 82(1993)년 4월 6일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신 것은 조국통일투쟁을 전민족적인 국운으로 밝힐 전시기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뜻깊은 이 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민족의 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에 한정성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의 용광과 경모의 정에 훈씬 있다.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은 지난 17년 동안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힘 있게 고무주동하였다.

위대한 평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 단결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 단결총서입니다.」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은 민족단합과 통일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 준 불멸의 민족대 단결총서이며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은 온 거리를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는 애국의 참뜻을 깊이 세겨주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에 투입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위대한 정치 강령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 국가를 창립하는 것을 전민족대 단결의

총적 목표로 규정하시고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함에 대한 민족대 단결의 리더적 기초와 근본원칙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동족 사이에 분별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장을 중지하고 복과 남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함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않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갈데 대한 문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 단결로 도모하는데 리롭게 허용하는 것을 장려함에 대한 문제, 민족대 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대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창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은 그 기치에서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울해 공동사설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분별주의 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거족적으로 밝혀져나서야 한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며 민족대 단결선언이다.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에 제시된 통일의 주체적 역량마련을 위한 원칙과 민족대 단결 5대 방침에 제시된 과업과 기본방도들이 북남공동선언들에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대 단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대 단결사상과 고귀한 업적은 오늘 위대한 평도 김정일동지에 의해 끝나고 있다. 그들은 6. 15 통일시대에 역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학처 이룩한 극악한 성파들을 천살없이 짓밟고 있다.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장령방안과 함께 앞으로 정체에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3대 현장으로 그 지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 단결사상이 및 나에게 구현된 민족대 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하였다. 민족대 단결 5대 방침은 대단결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온 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애국에 뜻이 어려워있는 민족대 단결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고수하고 드림없이 관찰하여야 한다.

복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에서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울해 공동사설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분별주의 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거족적으로 밝혀져나서야 한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며 민족대 단결선언이다.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에 제시된 통일의 주체적 역량마련을 위한 원칙과 민족대 단결 5대 방침에 제시된 과업과 기본방도들이 북남공동선언들에 뚜렷이 구현되어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온 거리에 힘을 학처 이룩한 평도 김정일동지에 의해 끝나고 있다. 그들은 6. 15 통일시대에 역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학처 이룩한 극악한 성파들을 천살없이 짓밟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집권하여 로골적으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외세에 아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반역적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6. 15 통일시대에 역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학처 이룩한 극악한 성파들을 천살없이 짓밟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전민족대 단결의

다. 그로 하여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자주통일운동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자주통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 여행에 거족적으로 멀려져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학처야 한다. 우리 나라의 통일업무를 전진시키는 기본요인은 민족의 대단결이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에 민족의 단결이 없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전민족적인 위업이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밖에서 자주화, 반파쑈 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그것을 저예하는 분별주의 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통한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시작한 반미자주투쟁을 꿈틀할 때까지 근기 있게 내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를 등에 업고 장기집권을 위하여 남조선사회를 파쇄암흑대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과세에 몰아가고 있는 매국역적들을 반대하는데 투쟁의 봉을 들려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겨례의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민족의 숨명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멀려져나서는 사람이다. 애국자의 삶은 통일조국과 더불어 후세에 깊이 빛날 것이다.

복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에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에 대오에 축족적으로 밝혀함으로써 민족대 단결 5대 방침 판결될 것이다.

김정우

독재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인권》 소동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보수당이 국무대를 통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간수록 열을 올리고 있다. 피리들은 얼마전에 있는 제 13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에 주장하고 전선을 알리는 전보의 연론들에 모조리 자갈을 물리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들을 닥친다. 그들은 《결의안》이라는 것을 《공동체안》 하는 망동을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철거민들을 무참히 불태워죽이고 평화적 시위에 나선 애기어 미니들과 어린 학생들, 늙은이들에게까지 무지막지한 폭력과 박해를 가하는 살인마, 독재 광물, 정의를 주장하고 전선을 알리는 전보의 연론들에 모조리 자갈을 물리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들을 닥친다. 그들은 《결의안》이라는 것을 《공동체안》 하는 망동을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철거민들을 무참히 불태워죽이고 평화적 시위에 나선 애기어 미니들과 어린 학생들, 늙은이들에게까지 무지막지한 폭력과 박해를 가하는 살인마, 독재 광물, 정의를 주장하고 전선을 알리는 전보의 연론들에 모조리 자갈을 물리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들을 닥친다. 그들은 《결의안》이라는 것을 《공동체안》 하는 망동을

남조선의 혁 보수당국이 유엔에서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조작 때문에 적극 가담해 나선 것은 이번까지 멀찌 세번째이다. 두해 전의 유엔총회와 남한해의 유엔인권리사회에서도 피리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모략문건을 《공동체안》 하는 추태를 부린다. 있다.

남조선의 혁 보수당국이 유엔에서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조작 때문에 적극 가담해 나선 것은 이번까지 멀찌 세번째이다. 그들은 《인권결의안》을 운운하며 품수없이 이아말로 양천대소 할 노릇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진정한 인권에 대한 모든 것이다.

피리들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박수를 쳐주면서 그에 팔고나서고 있는 것은 풀수에 배긴 대결판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의 뜻 뜻한 말로이다. 그들이 이제 절점 단에 이 외세와의 공조밀에 체계적으로 강화되어 날이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남조선보수당이 미일상전의 더러운 거수기 되어 조작해 나온 것은 이번까지 멀찌 세번째이다. 그들은 《인권결의안》을 운운하며 품수에 배긴 대결판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의 뜻 뜻한 말로이다. 그들이 이제 절점 단에 이 외세와의 공조밀에 체계적으로 강화되어 날이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세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는 다행이 아닌 《실용》 독재가 살판치는 남조선이다. 지금 남조선은 한혜의 자살진수와 너성들에 대한 성폭행범죄진수에서 세계적으로 단연 첫 손가락에 높이 떠있다. 복과 남, 해외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에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에 대오에 축족적으로 밝혀함으로써 민족대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실용》 거리들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 그 어떤 명분도 체면도 없다. 박철준

하늘로 날아난 《경제공약》

남조선의 혁 보수당은 지난 남조선의 현실은 이 물음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주고 있다.

사실상 보수당이 떠들어낸 『경제살리기』니 뛰어나는 것은 저들의 반역적 정체를 가리우고 민심을 낚아 권리율을 차지하기 위한 한낱 기만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실용정권〉의 〈경제공약〉 성적은 라이다.』

남조선인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허울 좋은 『경제살리기』니 뛰어나는 것은 저들의 반역적 정체를 가리우고 민심을 낚아 권리율을 차지한 후수집세력에 대한 것이다. 남조선보수당의 『경제공약』이 거짓말로 시작되어 거짓말로 끝났다는 것을 펼증하는 몇 가지 실례가 있다.

최악의 실업사태

지난 2년간 『실용정권』의 『일자리성적표』를 놓고 보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집권세력의 『공약』 대로 굳이 드러내고 있다.

보수당이 집권하여 2년이 지난 남조선의 현실은 이 물음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주고 있다.

남조선인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인들이 이제는 『대통령선거』 용이었다. 통산 참사, 초불시위 탄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권』의 2년은 남조선인들이 당시에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종시에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애국은 『대통령선거』 때 보수당의 기대였지만 『경제살리기』는 그에 대비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대통령선거』 시기에도 부르짖던 『서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었다. 세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백승떨치는 조선인민군

여 라 나 라 단 체 불 래 찐 발 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풀뿌리아조선선전문화협회에서 3월 30일 불례전을 발행하였다.

불례전은 『김정일국방위원회장과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용원정신이 꽂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적直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주부모를 목숨으로 서수하자!』. 이것은 조선인민군 창건들의 신념의 구호이며 하면서 불례전은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용원정신이 꽂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적直하였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조선에서는 가장 엄혹한 역경 속에서도 군민의 무한대한 사랑을 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도록 이를 주시였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주부모를 목숨으로 서수하자!』. 이것은 조선인민군 창건들의 신념의 구호이며 하면서 불례전은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용원정신이 꽂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적直하였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신을 모시고 불례전 제37호를 발행하였다.

불례전은 『김정일국방위원회장과 불례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국주의 지휘관들의 전횡과 강경에 관여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려의 정치사상, 군대를 활동하는 철학의 원칙을 짐작해보는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인민군인들에게 힘을 풀어주고자 노력하는 군인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조선에서는 가장 엄혹한 역경 속에서도 군민의 무한대한 사랑을 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도록 이를 주시였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 떨어뜨리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전진을 이어나온다.

불례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 갖춘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길이 백승을 멸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 봉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점령하여

차라났다.

관병일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이동이다.

조선인민군의 관병판례는 단순한 복종판례가 아니라 통지적 판례이며 철학의 판례로 되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 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건강을 친절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화한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건강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근심걱정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풀어주고 있다.

뜻밖의 정황에서 터지는 수루탄을 몸으로 던져 전사들을 구원하는 지휘관들도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힘을 넣으고 군인들에게 힘을